

완도 'Pre 해조류박람회' 미래 해양 산업 비전 제시

내달 2-7일 해변공원 일원 개최
'기후 리더, 해조류가...' 주제로
AI·프로젝션 맵핑 등 콘텐츠 다
먹거리·해조류 뷰티제품 등도

완도군은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바닷속을 탐험하듯 몰입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로 채워 미래 해양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5월2-7일 6일간 완도읍 해변공원 일원에서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를 주제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전시 콘셉트는 '블루 이노베이션(Blue innovation)'으로, 해조류와 블루카본(Blue Carbon)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 전시 공간은 기존 해조류센터를 새롭게 단장한 '이해관'과 '주제관'으로, 이해관은 해양 생태계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하는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은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 터널 '해저로의 초대'를 시작으로, 완도 바다의 하루를 프로젝트 맵핑으로 연출한 '완도의 해양'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진으로 인공지능(AI) 캐릭터를 만드는 '오션 스타', 직접 색칠한 해양 생물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라이브 오션' 등 융합형 콘텐츠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주제관은 마치 한 편의 장엄한 환경 영화를 감



완도군이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로 채워진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내달 2-7일까지 개최한다. 사진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관 중 하나인 주제관 조감도. <완도군 제공>

상하듯 몰입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쇼 형식으로 세밀하게 구성됐다.

첫번째 쇼 '바다의 위기'에서는 빙하 용해와 산호초 백화현상 등 무너져가는 해양 생태계의

참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두번째 '기후 리더, 해조류' 쇼에서는 위협받는 지구의 바다와 대비되는 청정 완도 바다를 대형 영상으로 표출하며 인간과 바다의 공존 가치를 역설한다.

끝으로 '내일의 약속'은 해조류를 매개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완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감동적으로 풀어낸다.

이와 함께 전시장 한편에는 해조 비빔밥 등 먹거리를 비롯해 해조류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과 보습 크림 등 뷰티 제품, 친환경 생분해 종이와 다화용기 등이 대거 전시돼 일상 속 해조류의 무궁무진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들이 직접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 솔루션으로서 해조류의 놀라운 가치를 체험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고구마 신품종 '호풍미' 급부상

도입 3년만에 300ha 규모 성장

고강도·병해충 저항성 등 월등

해남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내 육성 고구마 신품종 '호풍미'가 탁월한 상품성으로 지역 농가의 든든한 효자 품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잦은 이상 기후의 여파로 덩이줄기썩음병 등 병작물 병해 발생이 늘어나면서 질병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호풍미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지역 농가에 첫 보급된 호풍미는 2024년 48ha 규모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300ha까지 재배 면적이 수직 상승했다.



이해는 해남군 전체 고구마 재배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신품종에 대한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반영한다.

호풍미는 국내 기술로 육성된 품종으로 높은 당도와 뛰어난 식미, 매끈한 외관 상품성을 두루 갖춘 도매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다.

특히 기존 품종 대비 병해충 저항성이 월등히 뛰어나 관리가 수월하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돼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로 직결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호풍미 열풍의 핵심 동력인 우량 '조직배양묘' 보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무균 상태에서 배양된 호풍미 조직배양묘 약 19만8천본을 지역 농가에 공급하며 고품질 고구마 생산의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호풍미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해남 고구마의 명성을 굳건히 이어갈 최적의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우량 조직배양묘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해경,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

유관기관 합동 17곳 진단

목포해양경찰서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관내 대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점검에 나선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두달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소방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

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300㎥ 이상 기름 저장시설 16곳과 5만 이상 하역시설 1곳 등 총 17개소의 대형 시설이다.

합동 점검반은 잠재적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물 저장탱크 및 배관 안전 상태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여부 ▲하역시설 비상면지 억제 설비 관리 상태 등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점검을 통해 총 2건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정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해양시설은 사소한 관리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철저히 색출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청정 바다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과 폭사이 사야스 라오스 노동부 장관 등이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라오스, 농어촌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노동부 장관 비롯 7명 郡 방문

무안군은 "최근 폭사이 사야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대표단이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안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오스 노동부 대표단은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와 면담을 갖고,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이란 전정 여파로 항공료가 오르고 항공 노선이 부족해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계절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라오스 한국대사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폭사이 사야스 장관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무안군의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무안=김상호 기자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농작업 사전교육과 전염병 예방에 힘써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중 권한대행은 "무안군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대표단은 현경면에 있는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해 숙소 등 시설을 둘러보고,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나주시 사이클팀, 대통령기 2연패 달성 쾌거

장연우 감독, 나윤서·김도경 선수 등 수상

나주시 소속 사이클팀이 전국 규모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2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이클팀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사이클연맹과 전남사이클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90개 팀 416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나주시 사이클팀은 금메달 5개와 동메달 3개를 휩쓸었다.

특히 탁월한 지도력으로 팀의 2연패를 이끈 장연우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나윤서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거머쥐며 경점사를 누렸다.

올해 나주시청으로 이적해 새롭게 합류한 김도경 선수 역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특출한 공을 세웠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대회 2연패라는 값진 성과로 나주의 명예를 빛낸 사이클팀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진도군, 지산면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식재 모듈 활용 구간별 특색 담아

진도군은 28일 "지산면 영무리 일원에 '2026년 진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 등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인근 마을,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식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식재 모듈'을 활용한 가로수길 정비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수목을 심고 반대편에는 관목을 심어 구간별로 특색을 살린 입체적인 경관을 조성한다.

군은 명품가로수길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경관 개선을 통해 가로수길의 명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기간 중 일부 구간에서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하나로 군내면 일원에 이팝나무와 홍가시나무(레드로빈)를 심어 기존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조성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광군,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용역 보고회

영광군은 "최근 영광형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펀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 그에 따른 이익을 일정한 주기로 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 참여방법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강원 태백시 가덕산 풍력, 경북 영덕군 호지마을 풍력 등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 재생에너지 펀드 조

성 여건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 적정 수익성, 최소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햇빛과 바람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직접 투자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지역의 천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발전사업의 이익이 사업자 고유의 수익이 아닌 지역과 함께 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